

# 청소년기 운동선수 진로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군별 활동요소 탐색

이양구  
서원대학교

## Exploration of Activity Factors by Job to Strengthen Adolescent Athletes' Career Capacities

Yang-Gu Lee

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won University

요 약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실현시켜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생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은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달리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군 별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융합적 학습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이들 직업군 별로 특성화된 학습자료는 가장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가장 큰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실현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보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청소년기, 운동선수, 진로역량, 적성, 융합

**Abstract** To realize various opportunities to choose careers for adolescent sports players, first,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choose a job suitable for each student's aptitude. In reality, adolescent sports players absolutely have insufficient time for choosing various careers unlike general adolescents and realizing them. Thus, differentiated and specialized convergence learning materials are needed by each job cluster suitable for adolescent sports players' aptitude. The learning materials, specialized for these individual job clusters are a method to show a great effect on education with investing the minimum time, so they have a high value for utilization as necessary learning information for the realization of various opportunities to choose various careers for adolescent sports players.

**Key Words** : adolescent, athletes', career capacities, aptitude, convergence

### 1.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4차 혁명시대에 도래했으며 이로 인하여 직업은 세분화 및 전문화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은 초기에 본인의 직업에 대한 적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청소년기본법 상의 나이를 9~24세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사춘기에 들어서는 초등 고학년부부터 중등 학생까지를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청소년들은 자신이 진출 가능한 진로분야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철저히 하는 동안에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은 본인의 성격특성이나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련하여 별다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고 이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8017678)

\*Corresponding Author : Yang-Gu Lee (yglee@seowon.ac.kr)

Received May 23, 2018

Revised July 10, 2018

Accepted July 20, 2018

Published July 28, 2018

로 인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기사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일보와 대한체육회에서는 2004년부터 은퇴하여 10년 이상 선수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2014년 8월에 2주간의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체육인 66명 은퇴 이후 10년’이라는 명분하에 이들을 조사한 결과 체육인들은 은퇴한 이후 10명 중 6명가량이 자신이 일생을 바쳐 준비해 온 스포츠와는 무관한 일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자신이 전공으로 한 종목의 코치나 강사로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대부분 일반 계약직의 신분과 낮은 수입만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결과는 매 학년마다 약 24%의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운동부에서 탈락하여 결국 전체 운동선수들 중 약 10% 이하만이 전문적인 직업선수가 된다고 보고된 연구결과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2]. 즉, 약 90% 이상의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잦은 부상과 운동기량의 저하로 중도탈락의 위험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들이 중도탈락 후에 자신의 또 다른 진로설계에 대한 사전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재진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탈락을 경험하는 청소년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은퇴한 선수들도 대부분 풍족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어려운 현실 속에서 후배들보다도 먼저 운동을 그만둔 선수들은 그들에게 “운동만 고집하지 말고 공부를 병행하여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라”는 한결같은 충고를 하고 있다[1].

청소년기 신체적, 정신적 과도기에 들어서는 운동선수들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사라지거나,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지도와 정책 지원이 부족할 경우 진로발달을 위한 과업을 달성하기 어려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 사회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3].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은 지금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지금 현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가 되길 바라며 훈련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직업흥미와 적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선수로서의 진로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청소년기에 운동선수로 중도에 탈락할 경우 크나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태되어지기 쉽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에게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대한 지식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진로역량강화와 적절한 진로 설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기 운동선수가 다양한 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본인의 직업흥미와 적성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계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직업적 흥미와 성격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확인시켜줄 수 있기에 진로에 대한 발달사항이나 직업탐색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자신의 진로 흥미와 적성 등의 성격적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선택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검사도구는 본인이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활동과 업무, 직업의 환경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일들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들과 업무를 하길 원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으나 운동선수 종목과 관련된 일반적인 직업분류(GOT)는 Holland가 제시한 6각 모형이론에 의한 흥미유형적도에 기반 하고 있어 대부분 전반적인 스포츠에 대한 현재의 흥미와 행사참여, 운동 활동 등을 묻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4]. 더구나 운동선수의 경력과 개인의 적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직업들을 탐색할 때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군 역시도 예술분야(전문직)에서 무용가, 운동선수로, 예술분야(숙련직)는 스텐트맨, 백댄서로, 서비스(전문직)는 운동감독,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스포츠강사, 스포츠트레이너가 전부인 실정이다.

위와 같이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검사도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로는 체육계 현장 내에서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를 다양화하고 세분화시키고 있지 못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학교운동선수 진로 및 직업의식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장래 직업을 선택할 시 본인의 적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체육계로의 진로를 선택할 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체육관련 직업으로는 체육교사를 희망하고 있다[5]. 하지만 취업선호도 유형 분석을 진행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교사’ 직업 이외에도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운동경기 심판’, ‘스포츠 트레이너’, ‘스포츠 강사’ 등 신체 및 운동능력으로 구분된 직업군부터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등

년기에 운동선수로 중도에 탈락할 경우 크나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태되어지기 쉽다.

매니지먼트 산업 관련 직업군까지도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고 있음에 청소년기 운동선수의 경력과 적성이 부합하는 다양한 체육·스포츠 산업현장 내의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6].

국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선수로서의 경력을 끝마칠 즈음 이들의 친구와 동료들은 스포츠 이외의 또 다른 영역에서 많은 경력과 자격을 쌓고 있는 현실이 국내와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7]. 따라서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에게 단순한 학업증진과 스포츠산업 이외의 분야로 직업설계를 강요하기 보다는 체육·스포츠 산업현장 안에서의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적성을 탐색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금에 국내에서는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의 직업흥미와 성격에 관련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의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중요성은 전달되고는 있지만 청소년기 운동선수의 진로지도에 관한 기초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 학습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의 운동선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로교육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8].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진로역량강화 및 효과적인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동선수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직업흥미와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체육·스포츠 산업현장 내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운동선수 개인의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스포츠 산업현장 내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직업 활동별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한 후,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은 일반학생과 달리 진로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업군 별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진로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업군 별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진로교육은 가장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가장 큰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때문에 청소년기 운

동선수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모형 및 측정항목을 1차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사용하여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군별 특성화 활동 요소를 검증해보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체육 분야의 연구사업 및 현 체육·스포츠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15명(유관기관 관계자, 스포츠 산업 전문가, 대학교수, 진로상담 전문가, 교육전문가 등)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

### 2.2 조사도구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통해 선택적 속성 요인들을 추출하고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패널들에게 사전 전화통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본 연구조사에 참여할 긍정적인 의사가 있을 경우 연구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패널의 섭외가 끝난 이후 1차 라운드(round)에서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청소년기 운동선수 개인의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스포츠 산업현장 내에서 요구하는 직업군별 특성화 활동 요소에 대해 질의하였고, 응답된 내용을 토대로 2차 라운드(round)에서 도출된 사항을 정리하여 각 요소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3차 라운드(round)는 델파이 조사의 1, 2차 내용을 통해 보완될 사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였고, 델파이 기법을 통해 추출된 요인을 이용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법(AHP)을 사용하여 요인별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9].

### 2.3 측정항목 계층구조

본 연구는 청소년기 운동선수 개인의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스포츠 산업현장 내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진로 활동별 요소에 대한 중요도의 우선적 순위

를 분석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활용하였다. 계층구조로 나타낼 진로탐색 활동 분야는 현장형, 탐구형, 사회형, 사무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 하는 가치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계층적인 구조화 평가 틀은 다음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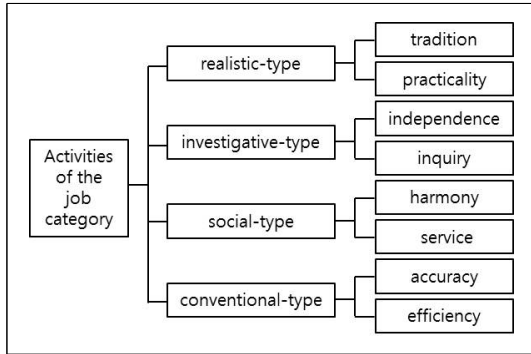


Fig. 1. hierarchical structure

2.4 일관성 검증 및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의 계층분석법 혹은 분석적 계층화 과정인 의사결정법(AHP)의 신뢰성 분석은 각각의 평가 요소들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할 때, 개인 대상자의 판단 상에 오차범위의 비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일관성 비율(CR) 계산 방법을 통해 제시한다 [10]. 보편적으로 일관성 비율(CR)은 해당 값이 적을수록 판단 상의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일관성 비율(CR)의 일관성 여부 판단의 기준인 0.1, 또는 일관성 비율의 임계치 10%이하일 경우에는 응답자가 상당부분 일관성 있게 쌍대비교, 즉 쌍으로 이루어진 대상에 대해서 일련의 판단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관성 비율에 대한 편차는 일관성 지수인 CI로 나타낸다[9]. 설문 문항의 일관성 비율(CR) 값이 0.1 이상인 경우 한 번 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응답으로 보고 활용하지 않았다. 지금에 재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일관성 지수값(CI)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난 설문내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항 내용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설문내용이 조사자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결과를 다시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관성 검증에 대

한 결과로 볼 때 신뢰성이 떨어지는 표본을 제외하고 최종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의 표본을 선정하여 일관성 검증 및 실증적 분석을 위해 SPSS WIN Ver. 23와 Expert Choice 11.1, Excel 201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현장형 진로 활동별 상대적 중요도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활동 요소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장형 진로 활동별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요소 중 우선적으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은 전문성, 사고력, 기술력, 장비사용, 대인관계, 활동력과 같은 활동 내용들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지금에 내용을 통해 AHP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활용요인별 하위 결과에 대한 우선적 순위의 중요도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ative importance of realistic-type course activities

activity element	weight	ranking	CR
professionalism	.383	1	.077 CR<.10
sociality	.057	5	
technical skills	.244	2	
use of tool	.052	6	
personal relations	.108	4	
activity	.15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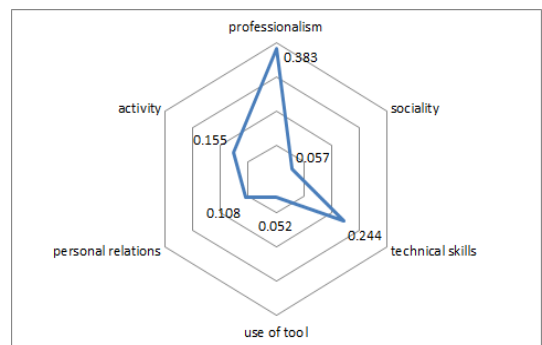


Fig. 2. relative importance of realistic-type course activities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현장형 진로 활동 요소별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383)’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도 사전 준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력(.244)’, ‘활동력(.155)’, ‘대인관계(.108)’, ‘사고력(.057)’, ‘장비사용(.052)’ 순서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관성 비율인 CR 값이 .07로 평가의 일관성은 확보되었다.

3.2 탐구형 진로 활동별 상대적 중요도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활동 요소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탐구형 진로 활동별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요소 중 우선적으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은 자료분석, 자료수집, 자료해석, 문제해결, 과학원리, 탐구능력과 같은 활동 내용들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지금에 내용을 통해 AHP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활용요인별 하위 결과에 대한 우선적 순위의 중요도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ative importance of investigative-type course activities

activity element	weight	ranking	CR
material analysis	.112	3	.065 CR<.10
data acquisition	.112	3	
interpretation of data	.112	3	
problem solving	.045	6	
scientific principle	.253	2	
ability to search	.36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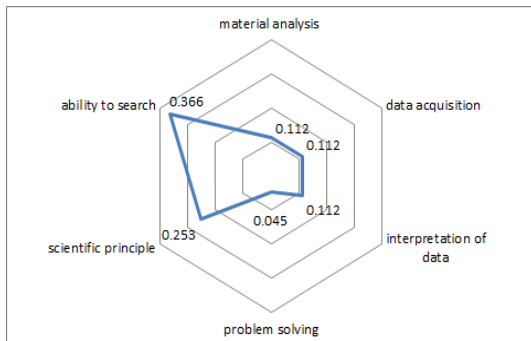


Fig. 3. relative importance of investigative-type course activities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탐구형 진로 활동 요소별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탐구능력(.366)’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도 사전 준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학원리(.253)’, ‘자료분석(.112)’, ‘자료수집(.112)’, ‘자료해석(.112)’, ‘문제해결(.045)’ 순서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관성 비율인 CR 값이 .06로 평가의 일관성은 확보되었다.

3.3 사회형 진로 활동별 상대적 중요도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활동 요소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형 진로 활동별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요소 중 우선적으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은 사회봉사, 교육봉사, 건강교육, 지도력, 배려심, 안전관리와 같은 활동 내용들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지금에 내용을 통해 AHP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활용요인별 하위 결과에 대한 우선적 순위의 중요도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relative importance of social-type course activities

activity element	weight	ranking	CR
community service	.132	5	.080 CR<.10
educational service	.146	3	
health education	.146	3	
leadership	.331	1	
thoughtful	.054	6	
safety management	.19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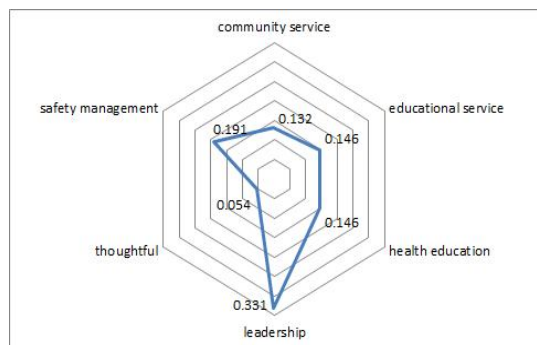


Fig. 4. relative importance of social-type course activities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사회형 진로 활동 요소별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도력(.331)’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도 사전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관리(.191)’, ‘교육봉사(.146)’, ‘건강교육(.146)’, ‘사회봉사(.132)’, ‘배려심(.054)’ 순서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관성 비율인 CR 값이 .08로 평가의 일관성은 확보되었다.

### 3.4 사무형 진로 활동별 상대적 중요도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활동 요소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무형 진로 활동별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요소 중 우선적으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은 추진력, PC활용능력, SW활용능력, 문서작성, 자료입력, 자료정리와 같은 활동 내용들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지금에 내용을 통해 AHP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활용요인별 하위 결과에 대한 우선적 순위의 중요도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relative importance of conventional-type course activities

activity element	weight	ranking	CR
initiative	.241	1	.081 CR<.10
computer application	.089	5	
SW application	.081	6	
document preparation	.184	3	
input of materials	.184	3	
Organize of data	.2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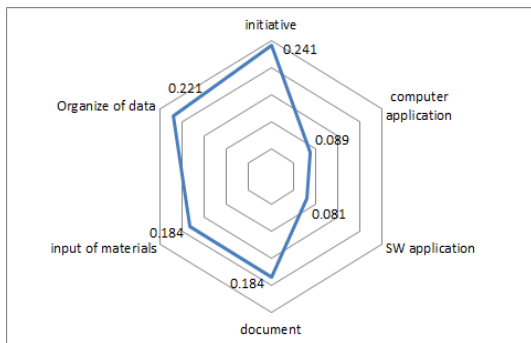


Fig. 5. relative importance of conventional-type course activities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이 선택된 진로로 진입하기 위한 사무형 진로 활동 요소별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추진력(.241)’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도 사전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료정리(.221)’, ‘문서작성(.184)’, ‘자료입력(.184)’, ‘PC활용능력(.089)’, ‘SW활용능력(.081)’ 순서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관성 비율인 CR 값이 .08로 평가의 일관성은 확보되었다.

## 4. 논의 및 결론

우리 사회는 최근 4차 혁명이라는 미래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학 기술은 고도화되고 지식과 정보는 폭증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유지하고 있는 체육 활동의 진로 역시도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체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인간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기에 최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증대되어 체육 활동을 접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결국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체육 활동과 관련되어진 직업들이 한층 더 다양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체육·스포츠 산업이 생활문화로서 자리를 잡아 무한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새로운 진로 교육 방향에서의 접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연구결과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및 결론을 내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안착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운동선수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더불어 상담교사까지 이들의 진로를 교육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직업적인 면에서 동등한 시각으로 봤을 때, 일반사회에서 근무하는 이들과 비교해 확연히 이른 은퇴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선택한 선수의 직업 이외의 또 다른 인생 설계가 필요하여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제2의 진로 설계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예로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같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업밀착형 커리큘럼을 교육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은 이미 듀얼커리어 시스템이 정착되어있어 운동선수들이 희망하는 진로와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운동선수를 위한 듀얼커리어적인 시스템의 일환으로 진로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학교와 스포츠클럽 및 체육단체들과의 협업으로 스포츠 엘리트슐레(Eliteschule des Sports)라는 스포츠엘리트를 양성하는 체육학교와 스포츠슐레(Sportschule)라는 체육중점학교에서 운동에 재능이 있는 선수를 전학시키거나 전문성을 개발하는 등 운동선수시절부터 진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지도자, 심판, 행정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향후 운동선수들이 수행하고 있는 운동과 더불어 학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그들의 운동수준과 인생 설계에 필요한 학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동선수들은 선수 신분으로 생활하는 동안 운동기능 향상이라는 목적 하에 고립된 생활에 갇혀 있어서 그들이 활동하는 장소 외에 새로운 환경으로의 진출은 크나큰 두려움으로 남는다[11]. 더구나 제한적인 체육·스포츠관련 직종들로 하여금 운동선수 출신자들의 진로개척은 더욱더 어렵기만하고 힘들게 진로를 개척한 이후에도 업무에 빨리 적응하지 못해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들이 빈번하다[12-15].

따라서 진로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한 교육이 사전 진행되어져 그들이 축적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무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에 연구결과물처럼 그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진로 정보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16]. 이와 더불어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에 비해 진로 교육에 대한 경험과 사례가 매우 부족하여 진로 선택의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에 진로학습 자료의 확산과 더불어 전담부서 및 직원(교육부, 문체부, 시도체육단체 등)의 운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셋째, 운동선수의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대학입학제도의 특기자 선발 기준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선수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위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최저학력제도 및 주말리그제 등을 제도화시켜 운영하고는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국가대표선수나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기본적인 학점을 제공해주는 등 현실적으로 제도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7,18].

이러한 이유는 성과중심의 대학 입학 체육특기자제도와 맞물려서 운동선수들이 학업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이 문제이며, 이들의 운동성적에 따른 지도자들의 업적 유지와 승진가산점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에 현실시점에서까지도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는 것이다[19,20].

특히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입상 성적만 있으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며 최근 이슈화 되었던 정유라 사건 역시도 현 제도의 특혜를 통한 학사 비리와 사건이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메달지상주의의 병폐를 조장시키는 우리나라의 체육특기자제도를 입상 성적과 더불어 학교 수업 상황에서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학업형태의 점수비율조화를 통해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대학과 사회 진반에 걸쳐 필요로 하는 체육인재로의 양성과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21].

## REFERENCES

- [1] S. H. Choe. (2014. 8. 27). Six out of 10 retired athletes maintain their livelihoods on sports. *News of Chosun*.
- [2] G. I. Lee, C. H. Huh & T. H. Ryu. (2011). The Exploration on Dropped Causes of Drop-out Student Athletes and Ways of Improving Their Problem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2(3), 2189-2202.
- [3] G. P. Cho & K. E. Chung. (2016). An Analysis on the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Level of the Vulnerable Youth -Based on Participants in the Do Dream Progra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3), 267-292.
- [4] D. G. Zytowski & R. E. Warman. (1982). The changing use of test in counseling. *Measurement and Education in Guidance*, 15, 147-152.
- [5] *Study on the Career and Vocational Consciousness of School Players*. (2011). Seoul :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 [6] Y. B. Park. (2017). Classification of College Students' Job Preference Types and Influence Analysis of

- Individual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3), 1-27.
- [7] K. McKnight, K. Bernes, T. Gunn, D. Chorney, D. Orr & A. Bardick. (2009). Life after sport: Athletic career transition and transferable skills. *Journal of Excellence*, 13, 63-77.
- [8] B. W. Brewer, J. L. Van Raalte & D. E. Linder. (1993). Athletic identity: Hercules' muscles or Achilles heel?.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4, 237-254.
- [9] T. L. Saaty. (1982).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New York, 14-20.
- [10] K. T. Cho. (2002). Aggregation of Multiple Evaluator's Weights in Applying the AHP to Evaluate Technology Alternatives.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19(2), 139-153.
- [11] Y. G. Lee & H. I. Kwon. (2013). Exploration of Outcomes for the System Development of Learning Right Polic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2(3), 527-538.
- [12] Y. G. Lee. (2014). Research on the Result of School Athletic Team Advancement Policy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3(4), 543-553.
- [13] T. R. Han, Y. L. Chung & H. J. Seo. (2010).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for the Career Path of Athletic Students. *Korea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23(2), 135-148.
- [14] S. J. Kim & J. H. Lee. (2016). The influence of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job in security on du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1(1), 161-174.
- [15] B. S. Park & S. B. Yang. (2017).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Career Identity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139-146.
- [16] S. M. Cho, K. S. Hwang, Y. S. Lee & J. J. Park. (2018). Customized Curriculum Operation for Student Sports Players of School Athletic Club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6), 651-672.
- [17] Y. S. Lee, J. K. Park, Y. L. Chung, W. K. Kim, J. H. Jang & M. S. Choi. (2016). Cause Analysis and Improvement Investigation on Non-compliance of Student-athletes' Security Policy on the Rights for Lear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14(2), 13-36.
- [18] H. K. Park. (2015).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on Student Athletes in School Athletic Clubs.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7(1), 83-112.
- [19] J. H. Park. (2017).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oach-student athletes Interact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ommitment to Spor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2(1), 71-82.
- [20] J. W. Park & D. H. Kim. (2016). Power Relations Inherent in the Culture of School Sport Teams and it's Policy Alternat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14(1), 89-104.
- [21] Y. G. Lee & H. J. Hong. (2017). Diagnosis of the Guarantee System of Right for Learning for Student Athletes in School Athletic Clubs and Development Strate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475-483.

이 양 구(Lee, Yang Gu)

[정회원]



- 2009년 2월 : 인하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박사)
- 2012년 3월 ~ 2015년 2월 : 중앙대학교 체육연구소 연구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학교체육, 체육측정평가

▪ E-Mail : yglee@seowon.ac.kr